

# "한국 싫지만 한드는 좋아" 日반한감정 이긴 한류의 힘

최근 일본에서 한국 드라마, 즉 '한드'가 흥행하며 관련 소식들이 연일 일본의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불시착'은 일본 넷플릭스에서 수개월간 시청 순위 1위를 고수하며 과거 신드롬을 일으킨 '겨울연가'에 비견되고 있고, '이태원 클라쓰'도 이에 버금가는 화제를 부르고 있죠. 여기에 '더 킹:영원의 군주' 그리고 '슬기로운 의사생활'까지 연이어 호평을 받으면서 일본 한류 붐의 선두 주자인 트와이스, BTS 등 K팝 인기의 아성을 넘볼 기세입니다.

한국 관련 소식들마다 악성 댓글이 도배되는 일본 포털 '야후재팬'이지만, 한국 드라마 소식에는 "한국은 싫지만, 사랑의 불시착은 봤다" "분하지만 영화도 그렇고 한국 드라마 수준은 일본보다 앞서 있다" 등의 댓글이 다수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죠. 일본 우익 정당 일본유신회의 전 대표로서 위안부를 부정하는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던 하시모토 도루 전 오사카 시장도 방송에서 '사랑의 불시착'을 재밌게 봤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양국 간 정치적 문제로 인해 반한 감정이 극에 달한 상황임에도 K팝에 드라마 흥행까지 겹치며 일본 내 한류에 대한 관심은 과거 어느 때보다 뜨거운 듯합니다. 이처럼 일본에서 험한 분위기와 한류 붐이 동시에 고조되고 있는 기묘한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 3차 한류 붐 촉매 '한드'의 인기 원인

본격적으로 일본에서 한류라는 말이 쓰이기 시작한 건 2000년대 초 영화 '쉬리'와 드라마 '겨울연가'의 대히트 이후부터입니다. 이때 일

본 열도를 강타한 한국 대중문화 열풍을 일본에서는 1세대 한류 붐이라고 보고, 2000년대 중반 이후 동방신기, 카라 등 K팝 아이돌 그룹이 활약한 시기를 2차 한류 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2년 여름 이후 침체기에 접어들었던 한류는 2017년께부터 트와이스와 BTS를 필두로 다시 불붙으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를 3차 한류 붐이라고 보고 있죠.

3차 한류 붐은 영화와 K팝을 계기로 발생한 1·2차와 달리 화장품과 패션, 음식 등의 인기가 SNS를 통

해 번지며 시작됐고 1020세대가 주소비층으로 중년 이상 세대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한국 콘텐츠진흥원은 스마트폰과 SNS에 친숙한 일본의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가 3차 한류 붐의 배경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죠.

그런데 최근 '한드'에는 중장년층도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의 불시착'을 계기로 중년들 사이에서도 시청자가 속출하고 예전엔 전혀 그렇지 않던 남성들도 '한드'를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일본 언론들은 '한드'의 인기 이유로 작품 자체의 퀄리티를 공통적으로 꼽습니다. '사랑의 불시착'의 경우 금단의 사랑, 재벌 등 한국 드라마 단골 소재가 나오지만 북한이라는 일본인들이 강한 호기심을 갖는 배경에 영화를 방불케 한 액션 장면 등을 이끌어낸 야심勃勃한 투자로 작품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태원 클라쓰'는 한국 드라마 하면 떠올리던 틀에 박힌 멜로극이 아닌, 비즈니스 복수극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 역대 최고 시청률의 드라마

▲ 일본에서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쓰' '더 킹' 등이 잇따라 흥행하면서 한드에 대한 관심이 전 세대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자와 나오키'와도 닮은꼴로 비교되고 있죠.

여기에 코로나19와 넷플릭스라는 새 영상 시청 플랫폼의 확산 등 드라마 외적 요인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자숙 기간과 재택근무로 인해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으로 '한드'를 보는 일본인이 늘었다는 겁니다.

### 혐한의 타깃이자 한류의 청병 재일 한국인

그런데 사실, 대중문화로서 한류의 기원은 2000년대 보다 한참 이전인 광복 직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제 패망후,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재일 한국인과 그 후손들이 차별이 상대적으로 적은 연예계나 스포츠계에 주로 진출했다는 건 잘 알려지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이들이 196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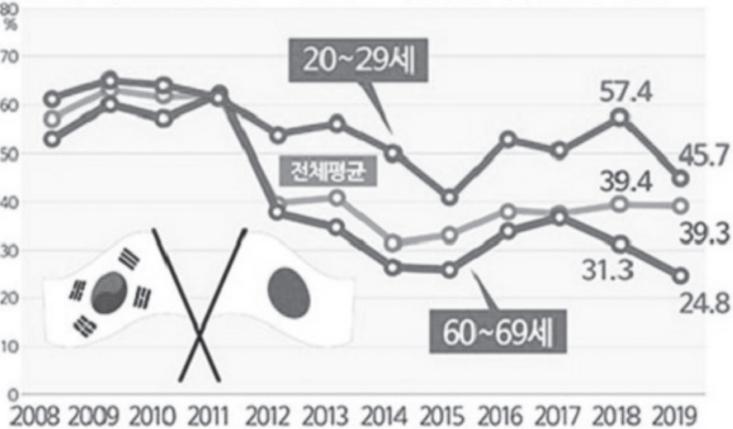
활약한 가수 미야코 하루미, 1970년대를 풍미한 일본의 아이돌 사이조 히데키와 야마구치 모모에 등으로 모두 한국인의 피를 이어받았습니다. 또한, 재일 한국인은 아니지만 1980년대에는 '가왕' 조용필이 일본에 진출해 최대 가요축제인 NHK 홍백가합전 무대에 4차례나 서기도 했고, '엔카의 여왕'이라 불리던 계은숙도 1980년~90년대 최고의 인기를 누리며 있었죠.

스포츠계에서는 그보다 더 이전인 1950년대부터 재일 한국인 출신들의 활약이 두드러졌습니다. 일본 프로레슬링계의 전설 역도산, 일본 프로야구 최다 안타기록 보유자 장훈, 역대 최다인 통산 400승을 기록한 가네다 마사이치 등이 대표적 예입니다. 즉, 일본에서 가장 쉽게 혐한의 타깃으로 지목되는 재일 한국인들을 중심으로 한류라는 말이 등장하기 수십년 전부터 한류의 조짐이 있었던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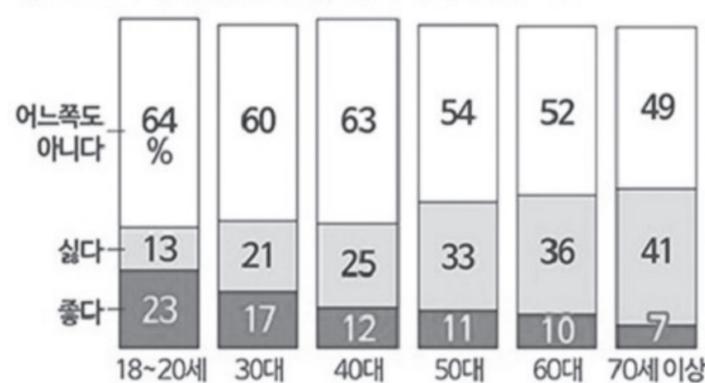
### 1020세대 "정치와 문화 소비는 별개"

일본의 1020세대, 특히 여성들에게 한국의 이미지가 좋은 이유는 역시 K팝을 필두로 한 한류 덕분입니다. 이들이 한류로부터 받는 영향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 내각부와 아사히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모두 젊은 세대일수록 한국에 대해 갖는 인상이 기성세대에 비해 훨씬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죠. 일본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도쿄에서 가장 궁극한 곳을 묻은 최근 설문조사에서 '한류의 성지' (...3 페이지에서 계속)

### 한국에 친밀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일본인 비율



### 당신은 한국이 좋습니까, 싫습니까 (단위=%)



▲ 외교문제 여파로 근래 일본인들의 한국에 대한 친밀감은 전세대에 걸쳐 감소했지만, 젊은세대일수록 한국에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1970년대 일본을 대표하는 가수이자 배우 야마구치 모모에는 일본에서 '전설의 아이돌'이라 불린다(좌)/1980년대 '돌아와요 부산항에' 등으로 일본에서 활동했던 조용필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까지

다민족 선교를 지향하는

## 캘거리 한우리교회

Calgary All Nations Community Church

우리는 복음과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고 세상 민족을 향해 나가는 비전 공동체입니다

담임목사: 김재욱 | 교육, 선교 담당: 이강훈 목사, 이한준 전도사 | 차세대 목사: 이민예배, 양육 담당 목사: 오상학

주일 예배	1부(교사)예배	오전 9시 30분
	2부 대예배	오전 11시
	교회학교 예배	오전 11시
	청년예배(KM/EM)	오후 2시
수요일 예배		저녁 7:30분
화요일 중보 기도		저녁 7시
토요일 새벽 기도		오전 7:00

www.calgaryhanwoori.com

예배처소 : Mount Royal University(Jenkins Theatre)  
4825 Mt. Royal Gate SW. Calgary AB. T3E 6K6

## 태양 정육·반찬·떡집

정육	반찬	떡류	
LA갈비, 찜갈비, 소불고기, 제육볶음, 삼겹살, 목살, 사골	대패삼겹살, 길이삼겹살, 양념갈비, 돼지불고기, 양념불고기, 꼬리, 샤브샤브	김치, 부추김치, 무말랭이, 고추무침, 오징어젓, 마른오징어무침, 멸치볶음	떡국떡, 백설기, 현미절편, 가래떡, 공백설기, 현미설기, 인절, 무지개떡, 절편, 공찰떡, 송편, 떡볶이떡, 현미공찰떡, 팔시루떡, 현미떡국떡, 녹두시루떡, 현미가래떡

"매달 두번째 화요일 휴업"

떡주문은 2~3일전에 해주십시오!

영업시간 : 월~토 11:00AM~7:00PM / 일요일, 할리데이 11:00AM~4:00PM

117, 15th Ave. SE Calgary AB  
TEL. 403-233-2252 / 613-5977